

# 불교미술의 선구자 황수영 박사 조명

### 한국미술사연구소 6월 14일 첫 학술대회 개최

불교미술사학의 길을 연 한국 미술사학계의 거두 초우 황수영 박사(1918~1944)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14일 오후 1시 4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유섭·황수영 문도회가 주관하는 '황수영 박사의 미술사연구 업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수영 박사 탄신 96주년을 기념한 이날 자리에서는 김정희 원광대 교수의 사회 하에 먼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생애와 학문세계' 기조발표가 진행된다.

의 연구로 인해 다향 학문체계 등이 새롭게 평가된다.

세미나에서는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안병찬 고려대 교수,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유마리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 실장이 논평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문명대 교수는 "황수영 박사는 평생을 헌신해 초창기 불교미술 분야를 개척한 위대한 학자"라며 "그 진면목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황수영 박사의 생전 사진. 황 박사는 불국사 석굴암 보수 등 불교문화재 복원에 큰 기여를 했다.

문명대 교수는 황수영 박사에 대해 "한국미술에서도 불교미술의 문을 연 개척자"라고 평가하며 특히 황 박사가 진행한 석굴암 중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한국불상 연구'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황수영 박사의 탐파 연구' △최희원 동국대 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범종 연구' △김창균 동국대 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은입사향연 연구' △박도하 前문화재단 문화재감정관의 '황수영 박사의 사경 및 사경화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황수영 박사의 업적과 함께 불상과 탐, 범종과 금속공예, 사경 등 불교미술의 발전 상황과 황수영 박사

### 초우 황수영 박사는?

초우 황수영 박사는 진홍섭 박사, 그리고 최순우 前국립박물관장과 같은 북한 개성 출신으로 한국미술사학계에서는 '개성 3인방'으로 불린다. 식민지시대 개성박물관장으로 있던 고유섭(高裕燮) 선생 문하에서 함께 미술사에 눈을 뗐다.

1918년 태어난 고인은 식민지시대 경북중학교와 일본 마쓰야마(松山) 고등학교를 거쳐 1941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광복 직후 귀국했다. 귀국 후 개성상업학교 교감으로 일하다가 1947년 이후 50년까지는 국립박물관에

투신해 박물관을 지냈으며 1956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돼 박물관장과 대학원장을 거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1962년 문화재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1981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무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1985년에는 하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동국대 총장을 지낸 저명한 역사학자 이선근 박사 추모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1994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됐다.

고인은 이처럼 비단 미술사 분야에 한

정되지 않고 문화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족적을 남겼다.

전공인 미술사 분야에서는 불교미술에 속하는 탐파와 불상, 공예 분야 연구를 진척시켰다. 학계에 미친 영향력이 워낙 커 황수영 박사의 지도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후학이 없지않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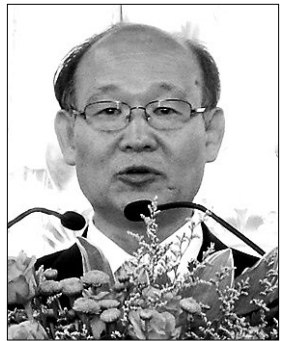
또 황수영 박사는 전국을 직접 발로 뛰다니며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견해냈다. 서산마애삼존불상과 팔공산 제2석굴암, 무주대왕 해종릉, 울주 반구대 암각화 유적은 그의 손길을 거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문화재 복원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교센터 건립에 힘 모아주자”

김선근 교수, 6월 14일 모금위한 고회법회

'동국대 불교센터 건립모금'을 위해 불교 원로학자가 고회법회를 개최한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6월 1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인도철학에서 본 대승불교-성철스님 간화선 사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고회법회를 개최한다. 법회에서 김 교수는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 극복으로서 성철 스님의 간화선 사상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선근 명예교수는 "인간 존엄성 상실과 소외, 핵전쟁의 공포,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인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때, 성철 스님의 간화선 사상을 실천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써 간화선 수행을 제시한 성철 스님의 노력은 기복중심적인 신앙풍토 속에서 사라져 버린 자각(自覺) 전통을 다시 일깨우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인된 기금은 전액 '동국대 불교센터' 건립에 기부된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은 2013년 11월 비전

2020 선포식을 통해 '동국대 불교센터' 건립을 수립한 바 있다. 동국대 불교센터는 불교학, 인문학, 세계 불교학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연구기관 등이 들어선다.

김 교수는 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인도철학회장 및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했다. 인도 정통학인 벵가라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인도철학과 대승불교의 관계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과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 여연 스님, 한국차문화학회 세미나 발제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조기정)는 5월 3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 발효차의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4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은 '한국 발효차 어떻게 갈 것인가' 기조강연에서 "지금 우리 차산업에 앞에 놓여있는 산은 FTA의 체결로 밀려올 세계의 차(茶)들과 함께 이미 소비자들이 깊이 빠져있는 커피시장이다"라고 말했다.

각 사찰에서는 차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여연 스님은 이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우리 차의 존재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여연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정승호 한국티소를 리에 연구원장의 '최근 세계 티산업의 동향' △박희준 동국대 교수의 '한국 발효차의 유형과 특성' △정은희 성신여대 교수의 '우리나라 차문화 확산과 차산업 발전' 등이 발표된다.



방향' △송영란 목포대 교수의 '후발효차 발전방향 연구'가 발표됐다.

조기정 교수는 "힐링의 물결을 타고 그 간 소외되었던 우리의 차가 비로소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차 산업계에서는 이에 부응해 소비자의 구미에도 맞는 다양한 차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4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가 개최돼 차 재료 및 제품, 차문화와 생활용품, 공예품, 포장기기, 찻집 및 프렌차이즈 업체, 차실 전문 인테리어 업체 등 다양한 차 관련 전시회가 개최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교학보> 제68집 원고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은 6월 23일까지 <불교학보> 제68집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한다.

주제는 불교학 관련이면 어느 분야든 가능하다. 연구원 발행 논문집으로 심사료 및 게재료가 없다. 분량은 200자 원고

지 120매 내외로 15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글요약과 영문요약 등의 양식체제를 갖춰야 한다. 접수는 불교문화연구원 이메일(bulgyohakbo@dongguk.edu)을 통해 가능하다. (02)6713-5166

노덕현 기자

## 백제 석조사면불상 균열로 보수 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현장의 날 공개

백제시대 조성된 석조사면불상에 균열이 가고 광배는 박락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6월 2일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에 미세균열에 의한 오염과 석재의 동·서·남·북 4면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남측 면과 동측 면 광배(光背) 부분은 박락의 우려가 있어 이번엔 보존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사면불상의 구조적 안정 상태와 풍화 훼손 상태 등을 3차원 정밀 실측을 통해 조사한 후 △표면 오염물 세척 △균열 부위 접착 △압착강화 처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조사면불상은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사면불(百濟四面佛)로는 유일하다. 자연석 4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1983년에 국립

공주박물관이 발굴해 1984년 보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산과 태안의 마애불과 비교되는 우수한 문화재로 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석조사면불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존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조언을 받아 보존처리 공사를 빈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의 날'을 시행한다.

6월부터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수리현장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적 466호 원주 법천사지, 보물 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등이 공개된다.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



탑으로 높이는 약 7m이다. 문화재청은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전탑 해체 보수 과정 △해체 부재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노덕현 기자

## 한국선학회, 6월 13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선사상을 축약해 드러난 선어록, 상징성이 강한 어록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번역해낼 수 있을까.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가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우리선우 법당에서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선어록 번역에 대한 문제가 다뤄진다.

'선어(禪語),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백파공선의 선문수경에 나타난 선어용례 연구' △정영식 동국대 HK교수의 '소소영영(昭昭靈靈) 개념의 비판에 대한 고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의 '평상심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영석 스님의 '선문영송집설화에 나타난 선어'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들 발표자들은 그동안 선어록을 번역하며 느낀 문제를 토대로 번역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개송!**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개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계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의정 한역·S. 담미카 영역·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개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계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의정 한역·S. 담미카 영역·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